

제자훈련은 내 가슴과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오생락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Th. M.)를 받았다. 서울신대원에서 <은보 옥한흠 목사의 설교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철학박사학위(Ph. D.) 논문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91년 춘천에 하늘평안교회(구 춘천시온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강원 CAL-NET 대표와 코칭넷 대표로 섬기고 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라

구호 전문가 한비아는 케냐에서 만난 한 안과 의사에게 “당신은 유명한 의사인데, 왜 이런 곳에 와서 힘든 일을 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의사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해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늘평안교회의 오생락 목사. 그 역시 지금 자칭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행운이다. 오 목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바로 ‘제자훈련’이다. 그는 목회자로서 제자훈련을 만난 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교회 성도들 역시 제자훈련을 통해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등 여러 변화를 갖게 된 것이 교회 이름처럼 하늘에서 내려 준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오생락 목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또 하나의 일은 바로 ‘개척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뼈저리게 가난하고 외로운 개척 교회 목회자 생활을 했기에 개척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자신과 하늘평안교회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그는 십사일만으로 돌린 개척 교회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늘평안교회 오생락 목사는 어떻게 연고도 없던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해 450여 명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고, 강원도 지역 내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가난하고 외롭던 개척 교회 목회자

모태신앙이었던 오생락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회자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대학 입학시험도 전기는 내지도 않고, 다니던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였던 서울신학대학교에 후기로 지원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많이 방황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다.

성결교단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 단독 목회를 2년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다. 이에 당시 교단 총회 본부의 십자군전도대에 들어가 미자립 교회에 파송돼 3개월간 이동하면서 전도 사역에 매진했다. 교회 개척보다는 십자군전도대 사역이 여건이 좋았고, 성도가 없는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와 단둘이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는 그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서울시온교회에서 전도사로 4년간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맡아 사역하다 1991년 2천만 원의 개척 지원금으로 아무 연고 없는 춘천 효자동에 춘천시온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첫돌이 갓 지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 오생락 목사는 유학의 꿈이 있어 교회 개척을 주저했으나, 기도 끝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2년 목사 안수를 받은 오 목사는 강원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춘천시온교회 덕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3년 만에 60여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는 1년 만에 19평에서 60평 건물로 이사를 했는데, 부흥을 경험하며 목회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와 기존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핵심 역할을 한 몇 가정의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다.

앞친 데 뒤편 격으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한 꺼번에 어려움이 몰려들자, 오 목사는 춘천 외곽의 버스도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허름한 건물이었던 1~2층은 주류 회사가 쓰고, 3층은 춘천시온교회가 사용했다. 그 후 4년간은 어둠의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았기에 봉고차로 성도들을 일일이 태우러 다녔다.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목회 안 하면 안돼요?”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오 목사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고, 영문을 모른 채 둘째 아들과 아내까지 뒤엉켜 한참을 울었다.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주머니에 단돈 100원도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고, 어린 자녀들 역시 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여겨 춘천 석사동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IMF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압류된 건물이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1998년 11월 교회를 이전했다. 이때부터 주부찬양모임, 테니스 무료 레슨, 어린이를 위한 글짓기와 영어교실을 통해 교회를 알렸고, 교회는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는 목회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다.



2001년 CAL세미나의 열정으로 시작된 1기 제자반 수료예배와
2005년 어렵게 건축된 하늘평안교회 예배당
그리고 옥한흠 목사가 보낸 화환

CAL세미나를 만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

오래전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고 큰 감명받았던 오 목사는 2000년 3월 44기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CAL세미나 마지막 밤이었던 금요일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옥한흠 목사의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은 ‘광인론’ 강의는 목회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타고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전통적인 목회관에 입각해 설교와 심방에 힘을 쏟아왔는데, CAL세미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했던 것이다. 그는 성도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깨달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당시의 감격을 『평신도를 깨운다』 책 한 귀퉁이에 다음과 같이 써 놓았다.

“CAL세미나 마지막 날 밤이었다. 일주일 내내 뻘뻘한 일정이었다. 더구나 오늘은 사랑의교회까지 가서 실습을 하느라 녹초가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일까? 나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부끄러운 생각만 든다. 그토록 열린 마음과 앞선 목회 철학을 가지고 평신도를 깨어 오신 옥한흠 목사님을 보면서 좌절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훈련시키자. 수적 성장에 대한 부담을 떨쳐 내고 본질에 입각해 차근차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 떼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양 떼들을 생각하며 죽을 각오로 사역하자. 성령께서 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한다. 지금의 이 열정과 나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다.”

그는 옥 목사의 “미치세요, 미쳐야 합니다. 목사가 미치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직도 가슴을 울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역시 옥 목사처럼 한 영혼에 미치기로 작정했고, 제자훈련에 점점 미쳐갔다.

그런 그의 열정은 2001년 5월에 1기 훈련생 모집으로 이어졌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남자반 3명, 여자반 6명으로 하늘평안교회의 역사적인 제자훈련이 시작됐다. 여자반에는 오 목사의 아내 조금란 사모도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열정 하나로 시작된 1기 제자반은 기쁨도 많았지만 위기도 많았다.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 훈련 중 발생한 문제들을 극복할 방법과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다.

훈련 시간에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난 남자반의 한 형제는 제자훈련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고,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생도 생겨 오 목사는 3개월간 입원한 훈련생을 위해 병원에서 훈련을 인도하기도 했다. 여자반 중 4명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훈련생들이었다. 아이들을 따로 떼어 놓는 게 힘들어 결국 훈련생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훈련받다 보니 어려움이 계속 생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금방 적응을 잘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늘평안교회 남자반과 여자반의 1기 제자훈련은 수료식까지 마쳤다. 어렵게 훈련받은 1기 제자반 덕분에 하늘평안교회 성도들은 힘들어도 제자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궁하면 통한다, 교회를 건축하자!

1기 제자훈련을 겨우 마치고 한숨 돌릴 만하자, 이번에는 건물주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40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전세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교회의 재정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할 수 없이 제직회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 목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결의였다.

신중·안정형인 오생락 목사의 성격대로라면 현재 임대료 2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건물을 찾아 나서야 정상



이었다. 그런데 예배당 건축이라는 비전을 품게 된 것이다. 그 비전은 하늘평안교회 온 성도가 함께 품게 됐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지금의 석사동에 좋은 땅이 나왔지만, 그림의 떡이었다. 계약금도 없었고 무모한 모험처럼 느껴졌다.

오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매달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의 문이 하나둘씩 열려, 1층짜리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다. 2001년 9월 9일은 역사적인 입당예배를 드린 날이다. 당시 옥한흠 목사가 보내 준 화분의 리본을 오 목사는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하늘평안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건축 후 2년 만에 예배당이 비좁아 성도들이 로비에 서서 예배드릴 정도로 교회가 부흥해 2005년 본당을 증축하고, 2006년 1월 22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그는 마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고생스럽게 건축하던 때를 생각하곤 한다.

2007년에는 교단 100주년 기념 전도왕 선발 공고문을 보고, 모든 행사를 전도 중심으로 바꿔 성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다. 이때부터 거의 매주 10명 이상씩 새가족이 등록했다. 교단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두 명의 성도가 전도왕으로, 하늘평안교회도 전도왕 교회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오 목사는 “마음 둘 곳 없어 흐르는 소양강 물줄기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말없이 함께해 주셨다. 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나아갈 때마다 굳게 걸려 있던 빗장들을 풀어 주셨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에게 기대려 할 때도, 그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철저히 성경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

뜻밖의 위기, 담임목사의 탈진

하늘평안교회는 예배당 건축 중에도 제자훈련을 매년 진행했다. 교회 건축에 밀려 제자훈련을 중단했으면, 양적 성장



에 매달리는 교회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 목사는 힘든 순간에는 더욱더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매진했다. 그런데 뜻밖의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오생락 목사로부터 왔다.

목회자의 탈진, 오 목사가 번 아웃된 것이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갈등을 겪는 성도들로 인해 몇 차례 위기가 있

긴 했지만, 교회 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기에 하늘평안교회 제자훈련은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오 목사 자신이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이 급격히 식고, 훈련이 짐처럼 여겨진 것이다. 회의감도 찾아왔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이 점점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돼 가는 게 느껴졌다. 그것은 지난 8년간 쉼 없이 달려온 오 목사에게 영적, 육적 심포가 필요한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징조였다.

사실 그는 개척 교회 시절에도 한 번의 좌절을 경험했다. 석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기 전 패배주의에 빠졌던 것이다. 그때는 교회 침체가 원인이었다. 그때 돌파구는 테니스였다. 목회에 대한 절망감을 해소하기 위해 테니스에 몰두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대단했다. 그 당시 오 목사를 지도한 코치는 2기 제자훈련을 받고 하늘평안교회 안수집사가 됐다.

하늘평안교회는 오 목사에게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식월을 갖도록 배려했다. 처음으로 사모와 함께 미국과 독일 등에서 3개월을 보낸 오 목사는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교회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에 억눌려 있었음을 깨달았다. 회개와 새로운 비전을 안식월 동안 가진 그는 두 가지 새로운 비전을 품고 교회로 돌아왔다.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개척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가 이런 비전을 품게 된 것은 자신이 가난한 개척 교회 목회자 출신이어서, 개척 교회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은혜의 빛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안식년을 가진 오 목사는 개척 교회를 섬기는 비전을 품고 강원 CAL-NET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매월 섬기는 코칭넷 모임을 갖고 있다.

싶었다. 그것이 개척 교회를 섬기는 비전으로 타올랐다.

그는 안식년을 다녀온 후 더욱더 제자훈련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마침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주최한 개척 교회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섬기면서 본격적으로 개척 교회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두 시간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다. 강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고민을 해결하셨고,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다.

CAL-NET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늘평안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조금씩 성장하자 오생락 목사는 CAL-NET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다. 워낙 내성적이고 외부 활동을 안 하던 오 목사이었지만 이상하게 강원 CAL-NET 모임만큼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2010년부터 강원 CAL-NET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는 전국 CAL-NET 모임, CAL세미나 지역모임이라면 빠짐없이 참석했다. CAL-NET 모임에 참석할수록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은 점점 뜨거워졌고, 자신도 모르게 육한흠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훈련의 광인(狂人)이 돼 가고 있었다. 그는 CAL-NET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그 선물을 혼자만 누리면 제자훈련 정신에 위배된다고, 베풀고 나누고 확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오 목사는 하늘평안교회 봉고차로 강원지역 목회자들을 실어 강릉 CAL-NET 모임에도 가고, 제자훈련 자료가 필요한 교회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강원 CAL-NET 모임이 오 목사 덕분에 오랜 침체기를 벗고, 전

국의 어느 CAL-NET 지역모임보다 부흥했을 정도다. 한 사람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니 강원도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게 됐다. 부흥한 강원 CAL-NET 모임 때문에 다른 지역 CAL-NET 모임이 도전과 자극을 받기도 했다.

오생락 목사는 “오늘의 강원 CAL-NET 모임은 전 대표이셨던 신재원 목사의 탁월한 가르침과 강원지역 목회자들의 단합된 지원과 기도의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침체된 강원 CAL-NET 모임을 2011년부터 하늘평안교회에서 다시 시작해 강원지역 곳곳에서 제자훈련을 배우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이 몰려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 CAL-NET 모임은 2012년에는 홍천교회에서, 2013년에는 태장성결교회에서 열렸고, 2014년에는 강릉강남교회에서 강원 CAL-NET 모임을 가졌다. 또한 대표 및 총무, 실행위원까지 7명을 위촉해 지역 CAL-NET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모임이 진행됐다. 또 강원 CAL-NET 모임 안에서도 춘천지역 모임과 원주지역 모임, 영동지역 모임으로 나뉘어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교회에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코칭넷을 통해 제자훈련을 공부하다

오 목사는 2011년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교회 이름도 춘천시온교회에서 ‘하늘평안교회’로 바꾸고, 개척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개척 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4월 갑자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내 교회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지역별 모델 교회를 선정해 개척 교회나 농촌 교회를 지속적으로 돕는 코칭 사역을 진행하는데, 하늘평안교회가 강원지역 교회를 맡아 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그런데 개척 교회 시절 외롭게 사역하던 그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힘내라!”라는

누군가의 진심어린 한마디가 절실했던 때가 생각났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 강원지역 목회자 30여 명을 초청해 1박 2일간 지역 코칭 세미나를 열었다. 이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매월 17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코칭넷 모임을 갖고 있다.

코칭넷 모임은 매월 17명의 강원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 그달의 주제강의, <디사이플> 나눔과 교제, 하늘평안교회 제자반 참관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하늘평안교회 여자

제자반을 참관했던 코칭넷 목회자들은 큰 도전을 받았고, 자신들도 제자훈련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 또 옥한흠 목사의 묘소에도 함께 방문해 제자훈련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한다.

하늘평안교회 전 성도는 오생락 목사가 섬기는 강원 CAL-NET과 코칭넷 모임을 기도제목으로 정해, 매주 기도하고 있다. 식사 한 끼에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청년 단기선교팀을 코칭넷 농촌 교회에 파송하거나 찬양단 구성이 어려운 코칭넷 교회를 위해 세미나를 열어 찬양 인도, 건반, 드럼, 어쿠스틱, 베이스, 보컬 등 각 분야별로 지도해 주기도 했다.

2016년에는 코칭넷을 좀 더 세분화해서 춘천모임과 원주모임으로 나눠 소그룹 참가자들이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모임에서는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나누고, 2016년 교회 표어와 목회 계획을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모임을 함께 하던 박광진 목사가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자, 코칭넷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회를 쓰실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발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코칭넷 내에서 원주남문교회 양기동 목사는 자신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외부 모임으로 코칭넷을 꼽을 정도로 애정을 표현했으며, 삼천동성결교회 이승구 목사는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코칭넷 모임인데, 코칭넷 1년 계획이 나오면 일정표에 정리할 정도로 이 모임을 사모한다고 밝혔다.

춘천교회 강문구 목사는 한 달에 한 번 목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의 안식과 재충전을 코칭넷을 통해 갖는다고



강조한다. 선한이웃교회 김중천 목사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코칭넷 모임은 매달 어떤 모임이 될지 기대하게 되고 감동을 안고 돌아가 힘 있게 사역하게 만드는 모임이라고 자랑했다.

이처럼 코칭넷 목회자들은 서로가 힘들 때 버팀목이 돼 준 코칭넷 모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참석하는 교회들 모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코칭넷 사역은 개척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제자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의 빛을 갚는 일이다. 코칭넷 목회자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식사와 간식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코칭넷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하늘평안교회와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사모 제자훈련, 도전과 자극제가 되다

하늘평안교회의 B.C.와 A.D.를 나눈다면,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조금란 사모다. CAL-NET 모임은 거의 대부분 부부 동반 모임이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란 사모에게 변화가 생겼다. 조 사모는 CAL-NET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는 제자훈련을 인도하지 않았고, 중보기도로 돕는 것을 선호했다. 그런데 CAL-NET 모임에 나가면서 목회자인 남편과 함께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사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전받았다. 그래서 2011년 3월 87기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CAL세미나 참석 이후 조 사모는 오 목사가 인도하는 제자반에 인턴십 과정으로 1년간 참관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제자반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조금란 사모는 “사실 남편이 제자훈련을 인도하고 파김치가 돼 돌아오면 안쓰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제자훈련을 인도해 보니 남편의 사역을 이해하게 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됐지요. 또 부부가 함께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부부간에 이야깃거리도 많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생겼어요. 잘은 못하지만 제자훈련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좋아요”라며 사역의 기쁨을 표현했다.

실제로 조금란 사모가 제자훈련을 인도하자 교회 내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우선 제자반의 반응이 오 목사가 인도할 때보다 좋았다.

오 목사는 “사실 목회자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아내는 열정적으로 제자훈련을 재미있게 인도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인도한 13기 제자반 이후에는 제자훈련 수료 후의 모임까지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3기 이전 제자반과 이후 제자반은 차이가 큼니다. 저는 아내가 제자훈련 체질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라고 웃음 지었다.

실제로 조 사모가 제자훈련을 인도한 이후 전체 제자훈련 기수별 모임이 생기고, 두 달에 한 번은 수료생 전체가 모여 좋은 글을 나누거나, 오 목사의 목회 비전을 나누며 자신들의 신앙 상태와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하게 됐다.

오생락 목사는 제자훈련을 오래 인도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사모가 제자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오 목사 부부의 영향력 덕분일까? 2015년에는 남자 제자반이 먼저 훈련받은 뒤, 남편들의 권유로 아내들이 제자훈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보통은 아내가 먼저 제자훈련을 받고 남편들에게 권유하는 풍조와 정반대 현상이다.

2014년 19기로 제자훈련을 수료한 전일화 집사는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성경적 지식이 없었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며 2막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돼 감사하다”며 “그래서 아내에게도 제자훈련을 권유해 2015년 아내가 훈련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봉기 집사 역시 “제자훈련을 받기 전 주변에서 ‘훈련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막상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대면하니 공동체 의식이나 동역자 의식 없이 혼자

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 왔음을 깨달았다. 아내 남혜순 집사에게도 훈련을 권유했고 부부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홍승희 집사는 “인도에서 오래 생활하다 하늘평안교회에 적응하고 훈련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소리도 덜 지르게 되는 등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게 됐다. 남편 김종성 집사도 교제의 소중함을 훈련을 통해 회복했다”라고 말했다.

사역훈련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지하다

조금란 사모는 하늘평안교회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많이 닮았다고 말한다. 낮을 가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일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제자반과 구역 소그룹이 가장 끈끈한 교제의 장인데, 아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 고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늘평안교회 안에 제자훈련과 구역 소그룹은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그룹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구역 소그룹은 현재 오생락 목사의 주일설교로 모임을 진행한다. 45명의 순장들이 함께하는 순장모임은 매주 주일 오후에 1시간씩 모인다.

오 목사는 교회 성도들의 나눔이 좀 더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도록 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오는 청장년 큐티지 <날마다 솟는 샘물>, 청소년 큐티지 <큐틴>, 고학년 어린이 큐티지 <큐티프렌즈>, 미취학·저학년 큐티지 <큐티하니>를 전 세대 큐티지로 사용할 방침이다. 성도들이 영적 침체를 겪지 않도록 개인 신앙을 체크하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또한 매월 배달되는 <디사이플>은 그에게 제자훈련의 도전과 감동을 주는 또 다른 동역자다. 그는 <디사이플>을 통해 훈련사역의 여러 가지 팀을 배우고, 자극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하늘평안교회는 제자훈련 기수에 비해 사역훈련을 1기밖에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오 목사는 그동안 사역훈련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이후 사역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훈련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교회 내 사역이 많아지면서 2012년에 사역훈련 1기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다시 훈련생을 모집해 2기 사역훈련을 인도할 방침이다. 하늘평안교회 제자훈련은 봄에 시작



하늘평안교회는 남편이 먼저 제자훈련 받고 아내에게 훈련을 권유하는 역풍조가 일고 있다. 또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중이다.

해서 겨울에 끝나는 사랑의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가을에 시작해 봄에 끝나기도 하고, 훈련생이 변화가 안 되면 더 길게 하기도 한다. 또 훈련생이 최소 5명까지 모집이 안 되면 기다렸다가 할 때도 있었다. 교회의 상황에 맞게 훈련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올해 모집할 사역훈련에는 여러 제자반 기수가 섞일 확률이 많다고 한다. 사역훈련을 3년 쉬었기에 훈련받을 훈련생들이 많은 것이다. 그는 올해 사역훈련을 통해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많은 평신도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창립 25주년 기념해 교회 개척 기도중

2011년은 하늘평안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였다. 그래서 20주년을 기해 교회 개척을 구체적으로 선포했다. 2008년 안식할 때 품은 이 비전은 위기의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로 인해 극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것이다.

하늘평안교회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5주까지 있는 달의 다섯째 주일은 '교회 개척 주일'로 지키며 헌금을 해 왔다. 또 매주 주일헌금과 십일조 헌금에서 십 분의 일을 따로 떼어 교회 개척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 교회는 2014년 은보추모기념사업회가 제자훈련 모델 교회에게 주는 '은보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하늘평안교회는 그때 받은 상금 1천만 원을 개척 교회를 위해 적립해 두고 있다. 바로 올해는 하늘평안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모은 헌금을 통해 교회 개척 비전이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고 있다.

오 목사는 "교회가 벌써 25주년이 됐다니 꿈을 꾸는 것 같다. 교회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개척 교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만큼 오게 된 것이 감사하다. 제자훈련으로 1~2년 안에

부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바로 제자훈련이라 여기고 여기까지 왔다.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성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감격해 했다.

하늘평안교회는 교회 안의 좋은 신자를 만들기보다,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 밖으로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를 만드는 것을 중시한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도 생활속제로 10분 일찍 출근하기, 커피로 동료들 섬기기 등 별것 아닌 일이지만 섬기고 나누는 일을 강조한다. 교회는 매주 지역의 10개 가정에 반찬 봉사도 하고 있고, 지난 10년 이상 춘천지역 장애인 행사도 도맡아 섬기고 있다.

오 목사는 사실 지난 한 해는 논문을 쓰느라 교회 사역에 많이 힘을 쏟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제자훈련과 전도'의 두 날개를 붙잡고 비상하려고 한다. 작년에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벤치마킹해 두세 명의 성도가 매 주일 오후예배에 5분 정도 간증하고 기부하며, 모아진 돈을 장애인이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오생략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면 평신도 동역자를 얻는 기쁨도 있지만 목사 자신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며 "본이 되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게 목회자답게 사는 데 자극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제자훈련을 통해 웃음을 여미고, 고(故) 옥한흠 목사처럼 제자훈련으로 가슴 뛰는 일을 평생 하고자 한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약하며 허물투성이지만 제2의 광인이 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남은 생을 더욱더 집중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사 60:22).  (우은진 기자)